

<랍 “문법” HTS 수특 - 8탄>

수특 p. 284~287, 301~304, 314~318 / 해설 p. 55~56, 59~60, 63~64

④

로마자 표기법 주요 규정





1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를 뵈면 분명히 득도를 빨리
하리니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었으며

무량수불을 본 사람은







	1	
	2	
	1	
	1	
	2	

2

Green header	

Green header	

- 1
- 2
- 1
- 1
- 2





-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①
- 상치가 난 데서 검붉은 피가 흘렀다. ②
- 그곳의 경치는 아름답기로 소문났다. ③
- 그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④
- 그녀는 군인이신 아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다. ⑤

—

—

—

—

—

—





1. [답해설]

[출제 내용]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선지 설명]

- ① ‘보- + -아서 → [봐서]’는 음운의 탈락이 아니라 ‘ㅇ’와 ‘ㅏ’가 반모음 ‘w’와 ‘ㅑ’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단모음 ‘ㅡ’와 단모음 ‘ㅣ’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ㅡ’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 ③ 단모음 ‘ㅡ’와 단모음 ‘ㅣ’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ㅡ’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 ④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ㅣ’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ㅣ’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 ⑤ 단모음 ‘ㅏ’와 단모음 ‘ㅑ’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ㅑ’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2. [답해설]

[출제 내용]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선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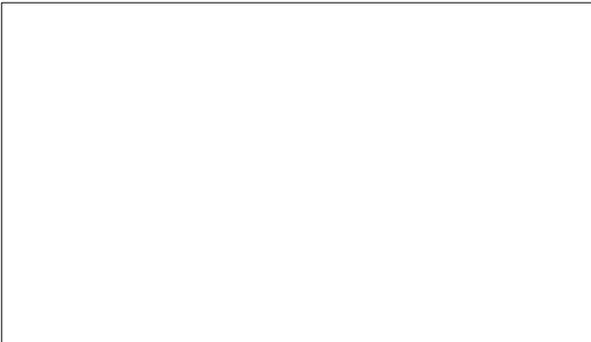
- ① ‘떠드는 사람’, 즉 듣는 이만 행동하기를 바라는 청유문이다. ㉠은 듣는 이인 ‘철수’만 행동하기를 바라는 청유문이다. ㉡은 ‘끼어드는 사람’, 즉 듣는 이만 행동하기를 바라는 청유문이다. 이에 반해, ㉢과 ㉣은 모두 말하는 이만 하려는 행동을 나타내는 청유문이다.

3. [답해설]

[출제 내용]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의 실제

[선지 설명]

- ① ‘국민’은 비음화되어 표준 발음이 [궁민]이므로 ‘gungmin’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한여름’은 ‘ㄴ’이 첨가되어 표준 발음이 [한너름]이므로 ‘hannyeoreum’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③ ‘같이’는 구개음화되어 표준 발음이 [가치]이므로 ‘gachi’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에 따라 ‘놓다[노타]’는 ‘nota’로 표기해야 한다.
- ⑤ ‘압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표준 발음이 [압쟁]이지만 ㉡에 따라 이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apjeong’으로 표기해야 한다.



4. [답해설]

[출제 내용]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선지 설명]

- 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을 높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 ②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모시다, 뵈다, 여쭙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③ (가)의 ‘보스븍면’과 (다)의 ‘보스븍’은 각각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 ‘뵈면, 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듣즈븍머’는 현대 국어의 특수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꿀 수 없다.
- ④ 자료에 주어진 예문을 보면 용언의 연결형과 관형사형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활용형에서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 ‘-습-’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고, ‘-습-’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다. 따라서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5. [답해설]

[출제 내용]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선지 설명]

- ① 어간 ‘듣-’은 ‘ㄷ’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줍-’이 오고, 활용형도 ‘듣줍고’가 되는 것이 옳다.
- ② 어간 ‘츠-’는 ‘ㅈ’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도 ‘츠습고’가 되는 것이 옳다. ‘츠다’는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라는 뜻이다.
- ③ 어간 ‘얼-’은 ‘ㄷ’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야’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졸-’이 오고, 활용형도 ‘얼졸바’가 되는 것이 옳다.
- ④ 어간 ‘뚝-’은 ‘ㅂ’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으니’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슬-’이 와야 하고, 활용형은 ‘뚝스븐니’가 되어야 한다.
- ⑤ 어간 ‘막-’은 ‘ㄱ’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거늘’은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은 ‘막습거늘’이 되는 것이 옳다.

6. [답해설]

[출제 내용]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선지 설명]

- ① 받침 ‘ㅌ’이 형식 형태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즉 ㉠과 ㉡ 모두에 해당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소치]로 발음된다.
- ② ‘끝을’의 ‘ㅌ’이 ㉠에 해당되지만 ‘끝을’의 ‘을’이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③ 자음 ‘ㄷ’ 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므로 ㉢의 예에 해





당한다.

④ '홀이불'의 첫째 음절의 어말 자음 'ㅌ'에 실질 형태소 '이불'이 결합하였다. 구개음화의 요소 중 ㉠에는 해당되지만 ㉡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⑤ '굳어[구더]'는 받침 'ㄷ'에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로 구개음화의 요소 중 ㉠에는 해당되지만 ㉡에 해당되지 않는다.

7. [랍해설]

[출제 내용]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선지 설명]

① ㉠의 '가다'는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임에 비해, '무리가 간다'의 '가다'는 '건강에 해가 되다'의 뜻을 지니는 본용언이다.

②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두다'와 선행 용언 '적다'의 어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미는 '-어'뿐이다.

③ ㉡의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인데, '친구들이 가 버렸다'에서의 '버리다' 역시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④ ㉢의 '오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임에 비해, '집을 옮겨 오다'의 '오다'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의 의미를 지니는 본용언이다.

⑤ '허락을 얻어서 내었다'라는 표현이 어색하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랍해설]

[출제 내용] 높임 표현 파악

[선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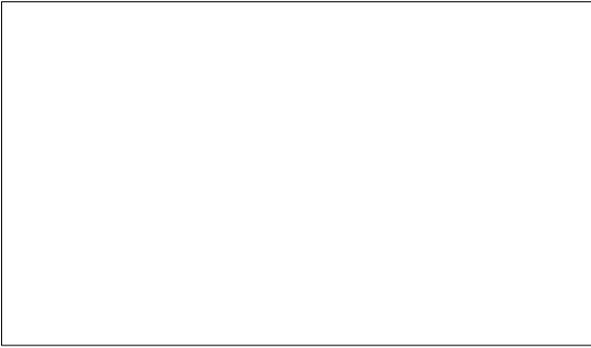
① '진지'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고, '여쭙어'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결 어미 '-렴'은 해라체에 해당한다.

② '택'을 통해 ㉠을 확인할 수 있고, '찾아뵙는'을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결 어미 '-니'는 해라체에 해당한다.

③ '진지'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고, '-나'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편찮으신'과 '드시나'는 객체를 높이는 용언이 아니라 주체인 사부인을 높이는 용언이다.

④ '생신'을 통해 ㉠을 확인할 수 있고, '드릴까'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결 어미 '-오'는 하오체에 해당한다.

⑤ '춘추'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고, '모시려고'를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는가'는 하계체의 의문형 종결 어미이다.



9. [랍해설]

[출제 내용]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파악

[선지 설명]

① <대화>에 제시된 ㉡ '믿음'의 '-(으)ㄴ'은 명사화 접미사로 명사화 접미사는 몇몇 단어들에만 붙는다.

② ㉢ '얻음'은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말로, 품사는 동사이지만 명사처럼 쓰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 '믿음'의 '-(으)ㄴ'은 명사화 접미사로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④ ㉢ '얻음'은 '얻-'과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말로 '얻다'가 활용되는 한 형태이다.

⑤ ㉡ '믿음'의 '-(으)ㄴ'과 '먹이'의 '-이'는 모두 명사화 접미사이다.

10. [랍해설]

[출제 내용]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선지 설명]

⑤

㉠ '떠나기'는 부사어 '바로'의 수식을 받는다.

㉡ '기쁨'은 관형어 '승리의'의 수식을 받는다.

㉢ '빠기'는 부사어 '효율적으로'의 수식을 받는다.

㉣ '꿈'은 관형어 '놀라운'의 수식을 받는다.

㉤ '크기'는 관형어 '어미의'의 수식을 받는다.

11. [랍해설]

[출제 내용]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선지 설명]

① '맡기고'는 [맡끼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23항에 따라 된 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② '더듬지'는 [더듬찌]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24항에 따라 된 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③ <보기>의 제25항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③ '여덫도'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표준 발음은 [여덫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덫도'는 제23항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덫'의 발음이





[여덟]이 아니라 [여덜]이기 때문이다.

④ '일시에'는 [일씨에]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26항에 따라 된 소리되기 일어난 결과이다.

⑤ '그만둘지언정'은 [그만둘찌언정]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 27항의 [붙임]에 따라 된소리되기 일어난 결과이다.

12. [랍해설]

[출제 내용]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선지 설명]

- ①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고'의 '물리다'는 '물다1 귀'의 사동사이다.
- ② '개에게 물린 상처'의 '물리다'는 '물다1 귀'의 피동사이다.
- ③ '과징금을 물렸다'의 '물리다'는 '물다2 귀'의 사동사이다.
- ④ '구입한 책들을 물리고 왔다'의 '물리다'는 '무르다 귀'의 사동사이다.
- ⑤ '사흘 뒤로 물리다'의 '물리다'는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의 뜻을 지니며 '무르다 귀'의 사동사가 아니다. ㉠의 예문으로는 '바둑 한 수를 물리다.'가 적절하다.

13. [랍해설]

[출제 내용]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선지 설명]

- ① '이'는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으로 실현된다.
- ② 조사 '와'와 결합할 때는 '나모'로 실현되기 때문에 '나모와'의 형태로 실현된다.
- ③ '을'은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으로 실현된다.
- ④ '이'는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나모 + 이'는 '남기(남+이)'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⑤ '마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나모'로 실현된다.



14. [랍해설]

[출제 내용] 형태소의 개념, 특성 파악

[선지 설명]

- ① 학교 문법에서는 일정 정도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답-'과 같은 접사는 형식 형태소로 분류함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만'은 보조사인데, 학교 문법에서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또한 다소간의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더라도 보조사는 형식 형태소로 분류함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추-'는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접사인데,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취급함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학교 문법에서는 일정 정도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개'와 같은 접사는 형식 형태소로 분류함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군세계'의 '군-'은 용언 '군다'의 어간으로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이다.

15. [랍해설]

[출제 내용] 단어의 구조 파악

[선지 설명]

- ㉠
- ① '착'은 '-하-' 이외의 형태소와는 결합하기 어렵다.
- ② '검-'은 '검퍼랏다, 검푸르다, 검누랏다, 검누르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태소 결합의 제약이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 ③ '아름'은 '-답-' 이외의 형태소와는 결합하기 어렵다.
- ④ '-으키-'는 '일다'와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로 '일-' 이외의 형태소와는 결합하기 어렵다.
- ⑤ '-스립-'은 '가증스립다, 복스립다, 걱정스립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태소 결합의 제약이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빠른 정답>

- 1. ①
- 2. ①
- 3. ④
- 4. ⑤
- 5. ④
- 6. ②
- 7. ④
- 8. ⑤
- 9. ①
- 10. ⑤
- 11. ③
- 12. ⑤
- 13. ④
- 14. ⑤
- 15. ②





그저 무작정 혼자 버스에 몸을 실었지.
창 밖의 사람들 멍하니 보며 혼자서 웃고 울지.
내게도 미래가 있을까.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꿈꾸는 대로 된다는데,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작더라도 손에 닿을 희망.
세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힘들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용기.

친구들을 만나도 속마음은 숨기게 돼.
어둡고 좁은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외로움이.
잘 지내던 엄마의 전화, 끊고 나면 한없는 눈물.
꿈꾸는 대로 된다는데, 좋은 생각만 가지라는데, 아직 늦진 않았어.
힘든 기억도 추억이 돼. 편하기만 한 여행은 없잖아.
언제까지나 미룰 순 없어. 작은 기적은 내가 시작해야 해.

길고도 좁던 저 골목 모퉁이,
들어설 때면 상상도 못할 멋진 세상 기다리고 있겠지.
이대로 주저앉진 않아.
바보같이 울지도 않을 거야. 어리광도 안 할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맘껏 소리쳐줄 거야
세월이 흘러 생의 끝자락 뒤돌아볼 때 후회 없도록
한 점의 후회 갖지 않도록. I live. I live.

-박정현 'Song For Me'-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맘껏 소리쳐줄 거야”

